

Vol. 20 No. 959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May 31 2024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정부조달사업에 뛰어든 박찬모씨,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로건공항내 패스트푸드점 사업도 미국사회 네트워킹 모임서 정보
모든 정부사업관련 정보는 공개돼 있어, 시도하는 사람만 성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우스터 인디아 소사이어티(인도계 커뮤니티 센터)는 우스터가 아닌 인근 스루스베리에 위치해 있다. 495번 도로 인근에 자리한 단독 건물에 위치한 이 센터는 넓은 주차장과 강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4월 말 소수민족 사업자 인증에 관한 중소기업청(SBA) 세미나가 열렸다. 참석자의 대부분은 인도인이었는데, 강연자 중 한 명은 한인 사업가인 박찬모씨였다.

박씨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민족사업자 인증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참석자들은 그의 강연에 폭소를 터뜨리며 흥미를 가졌다. 강연이 끝난 후 박씨는 참석자들로부터 여러

통의 관련 문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강연을 옥타경제인협회 한인들에게도 했으나 단 한 건의 추가 질문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 작은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아시아비즈니스진흥카운슬(ABE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매사추세츠에서 아시아인 사업체 증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인도계 비즈니스는 124% 증가했다. 한인들의 사업체 증가는 3%에 그쳤다. 거의 같은 기간인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센서스 당국의 아시아인 커뮤니티서베이에 따르면 한인 인구는 약 25,718명에서 30,656명으로 19.2% 증가했다.

인구 증가율에 비해 사 ▶▶12면으로 계속



한인 사업가 박찬모씨가 지난 4월 30일 스루스베리 소재 우스터 인디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SBA 소수민족사업인증 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박씨의 강연은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흥미롭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THE PRO 수잔리 부동산
REALTY GROUP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확실한 보상. 전문적인 권유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권유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년만에 다시 듣는 첼리스트 문태국 독주회

탁월한 실력의 첼리스트 더욱 성숙한 음악 기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다수의 젊은 한인 음악가 중에서도 탁월한 실력으로 널리 알려진 첼리스트 문태국(30) 씨의 연주회가 오는 6월 22일(토)에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윌리엄스 홀에서 열린다.

문태국 씨는 만 4세에 첼로를 시작하여 국내 콩쿠르에서 입상과 우승을 차지한 뒤, 13세에 도미하여 줄리어드 예비학교를 거쳐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2011년 앙드레 나바라 국제 콩쿠르 우승,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쿠르 우승, 2016년 야노스 슈타커 어워드 수상, 2019년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입상, 2022년 퀸 엘리자베스 첼로 콩쿠르 입상을 통해 국제적 주목과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브레멘 필하모닉, 헝가리 라디오 심포니, 툴루즈 내셔널 오케스트라, 타이페이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 프라하 심포니, KBS 심포니 등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서울아트센터 여름 음악 페스티벌, 롯데 콘서트홀 클래식 레볼루션,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댈러스 인터내셔널 실내악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에서 연주했다.

미국 남가주 대학교(USC)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성정문화재단과 황진장학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SK 케미칼의 <그리움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다. 2017년 금호아트홀과 2022년 롯데 콘서트홀의 상주 예술가로 활동하였고, 2019년에는 워너뮤직에서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인 <첼로의 노래>를 발매하였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포레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슈만의 <환상소곡집, Op. 73>, 윤이상 독주곡 <노래>, 멘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를 연주할 예정이다.

함께 연주할 피아니스트 이지영 씨는 연세대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줄리어드 음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풀타임 오페라 코치로, 보스톤 리릭 오페라의 스태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살리에리-지네티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카네기홀 와일 홀, 케네디 센터, 머킨 콘서트 홀, 조던 홀 등에서 연주하였다.

연주회를 주최하는 보스톤 한미 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카잘스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여 화제가 되었던 문태국 씨를 초청하여 그의 연주를 처음 들었던 것이 벌써 10년 전이었다. 그때에도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지금은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다시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그의 음악을 듣고 느끼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공연 정보>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쿠르 우승자

문태국 첼로 독주회

이지영 피아노

6월 22일 (토) 저녁 7시반

Williams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PROGRAM

Fauré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Schumann Fantasiestücke, Op. 73
Yun Nore
Mendelssoh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2

티켓: www.kcsboston.org

문태국 첼로 독주회

일시: 2024년 6월 22일 (토) 오후 7시 30분

장소: New England Conservatory, Williams Hall (290 Hunting-

ton Ave, Boston, MA)

티켓 및 정보 : www.kcsboston.org (일반 \$30/시니어 \$20/학생은 무료이나 사전 등록 필요)

서울설령탕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 (pork belly)

N4. 냉면+L.A. 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유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유람건강검진 ◆
시선 장비, 컬러티, 경진방독,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우' 프로그램입니다.
불법진 상임·백과·검진전담·서울근로복지연구원 연계로 드려드립니다

☑ 유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1. 이학적검사(심폐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2. 동맥경사(순환성질환 검사)
3. 혈액검사(총콜레스테롤 검사 70여가지)
4. 암표지자검사
5. 신장기능검사(혈중부-RAY, EKG, 노폐물배출량)
6. 오십사
7. 목지상검사
8. 복부/과경사시자(정맥류, 부종, 유방질환)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10. 핵분초음파(정맥류, 유방, 목부종기)
11. 분진 및 건조의 상진

유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5만원 -
·가진방 - [1] 심폐계측, 안압, 시력, 안압, 혈압, 비만도, 혈액검사
·가진방 - [2] 심장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혈액검사

유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65만원 -
·가진방 종합검진 + 수면 위내시경 + 식욕(1인용)

유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120만원 -
·가진방 종합검진 + 심방, EKG

유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당일 12시경 휴면 240만원 -
·가진방 종합검진 + 4차, 5차, 유방초음파, 수면 위내시경, 혈액검사, 식욕(1인용), 건강검진, 핵분초음파, 핵분초음파(1인용)

유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위급 및 최첨단 정보를 위한 의료서비스

중앙대학교병원(서울역) H+원지병원(신원역)
서울무민병원(가양역) 세란병원(북촌역)
연세대학교병원(선부역)

617.949.1766
주소: 210-3499-4040(D: Innamkorea)
이메일: hysun@hyunam.com
홈페이지: www.hyunam.com



COMPASS

Achieved in 2023

\$25M+

TOTAL SALES

40+

TOTAL # OF TRANSACTIONS

I've helped 41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4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Honors:

- 2022, 2023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Achieved top-ranked (#1) solo agent status at Compass Cambridge Office, demonstrating top performance in sales and client satisfaction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 List
- Hosted the Boston episode of 'The American Dream', a national TV show, highlighting Boston's real estate, and lifestyle to a nationwide audience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올 여름부터 MBTA 요금 결제, 스마트폰, 크레딧카드로도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현금이 없어 전철을 타지 못했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올 여름부터 대중교통 버스와 전철 등을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MBTA는 올 여름부터 스마트폰의 모바일 월렛, 무선결제가능 크레딧카드 등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MBTA 이사회는 21일 교통 결제 시스템 테크놀로지 회사인 큐빅과의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이 시스템의 설치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은 올 여름께 지하철, 버스, 그리고 그린라인 트롤리에서 시작되며 기존의 찰리카드나 애플 및 구글 페이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신규 시스템은 올 여름부터 시행되는 연방 빈곤선 200% 이하 저소득자의 할인 요금도 지원한다.

2025년 봄까지 MBTA는 신규 찰리카드 시스템, 모바일 앱, 그리고 첨단화된 요금 판매 기계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6년 봄에는 신규 결제가 커뮤터 레일로 확장되며, 페리의 경우 휴대용 스캐너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MBTA 관계자들은 이번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버스와 그린라인의 승하차가 앞뒤 문 모두에서 가능해지므로 운행이 훨씬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들도 찰리카드 판매대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크레딧카드 또는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hsb@bostonkorea.com



다이아몬드 상품으로 걸린 다이아몬드 컵 골프대회 개최

공립학교 태권도복 공급 기금 모금 마련 골프대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차세대리더십재단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이 주최하는 다이아몬드 컵 골프대회가 7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 블루힐컨트리클럽 (Blue Hill Country Club)에서 개최된다.

1캐럿짜리 랩그론 다이아몬드 4개가 4개 홀 파3 근접상 상품으로 걸린 이 대회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공립학교에 태권도복을 공급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골프대회는 4인 1조 샷건

스크램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등에 \$2,000, 2등에 \$1,500, 그리고 3등에 \$1,000을 상금으로 지급하며, 장타상은 \$215가 지급된다.

참가비는 1인당 \$200이며, 점심과 저녁, 그리고 DJ와 함께하는 파티가 이어진다.

블루힐컨트리클럽 (Blue Hill Country Club)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을 열며, 11시부터 연습 레인지가 개장된다.

골프대회 신청 및 문의는 피터(860-304-3530,

peter.dong@uslif.org)에게 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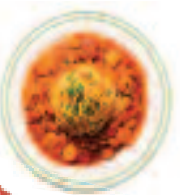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Y 31st - JUNE 6th, 2024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HANGOVER TOMATO PASTA

This Hangover Tomato Pasta stands out with its uniquely deep flavor, enhanced by Korean pepper powder, anchovy broth, and shrimp!
 얼큰한 국물로 숙이 확 풀리는 토마토 해장 파스타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weet Potato 고구마 10 LB/BOX \$17.99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Sand Pear 샌드 배 LB \$2.99	Kabocha 단호박 LB \$0.99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Red Cherry 레드 체리 LB \$4.99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inger 생강 LB \$2.99	Tommy Mango 타미 망고 BOX \$9.99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3.99 FOR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Chuck Eye Roll Steak 생 목등심 스테이크 LB \$8.99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Fresh Pork Spare Ribs for BBQ 생 돼지 갈비 (바베크용) LB \$3.4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LB \$7.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49	Marinated Beef Short Ribs (LA Style) 양념 LA 갈비 SLICED/LB \$14.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Dried Shrimp 건새우 LB \$9.99	TONGTONGBAY Frozen Salted Mackerel Fillet 통통배 The 맛있는 고등어 13 OZ/PKG \$5.99
Frozen 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새우 10-20'S/LB \$5.99	Frozen Mussels in a Garlic Butter Sauce 냉동 갈릭버터 소스 혼합 1 LB/PKG \$2.99
Frozen Mussels in a Tomato and Garlic Butter Sauce 냉동 토마토 & 버터 소스 혼합 1 LB/PKG \$2.99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LB \$7.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NONGHYUP Yecheon Korean Rice 농협 예천 일품쌀 22 LB \$24.99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1.99
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Honey Butter Potato Chip 해태 허니버터칩 1.05 OZ X 12 EA/BOX \$9.99	H MART SMART CARD ONLY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14.6 OZ (9 EA/BOX) \$9.99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4.93 OZ X 6 BOWLS/BOX \$7.99	SAMYANG Spicy Chicken Flavor Ramen Big Bowl 삼양 불닭볶음면 큰컵 3.7 OZ X 6 BOWLS/BOX \$7.99	SUNGGYUNG FOOD Seasoned Sliced Green Laver/ Olive & Green Tea Laver 성경 지도표 재래식 파래김/올리브 & 녹차김 0.14 OZ X 20 EA/PKG \$5.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 OZ \$7.99	PULMUONE Plantbased Flat Dumplings 풀무원 식물성 납작만두 24.7 OZ \$6.99
K TOWN Soup Stock for Cold Noodles 케이타운 냉면 육수 BEEF/DONGCHIMI 11.49 FL OZ X 6 EA/PKG \$3.99	FOODCELL Vermicelli Asian Style Starch Noodles 푸르셀면 궁중당면 골드 1.5 LB \$3.99	SAJO Canned Fresh Pacific Saury 사조 공치 통조림 10.58 OZ \$3.99	ORION O!Tube Cheddar Cheese Flavored Snack 오리온 오감자 4.06 OZ \$2.99	NONGSHIM Shrimp Flavored Cracker 농심 새우깡 14.1 OZ \$6.99
HAII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이름 껍질 깎 맛밤 3.52 OZ \$2.99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16.9 FL OZ \$1.99	HELLO HOME High Power Butane Gas Stove 헬로홈 고화력 가스렌지 NAVY/EA -\$27.99 \$18.99	SURLASANG Square Fry Pan 수라상 마블 후라이팬 27 CM/EA -\$23.99 \$16.99	Silicone Ice Cube Tray with Lid 실리콘 아이스 큐브 트레이 24 CUBES/36 CUBES PINK/BLUE/GREEN -\$4.49 \$3.49 E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재외동포문학상 공모, 6월 말 마감

시, 단편소설, 수필 및 수기 등 총 3개 부문 13명 선정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청이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동포와 내국인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문학상 공모전은 거주국내 시민권 및 영주권자,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 재외동포가 응모할 수 있으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시민권, 영주권 또는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면 가능하다. 공모는 자유주제인 시와 단편소설, 수필수기 등 총 세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는 3편에서 5편까지 출품해야 하고 단편소설도 1편에서 최대 3편까지 제출 가능하다. 수필수기 부문은 '거주국내 현저사회에서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낀 경험,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현저사회에서 다양한 활동교류 경험, 한글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 경험, 이민 정착과정 중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 기타 자유주제로 최대 3편의

작품을 공모할 수 있다. 마감은 6월 30일(일)까지이다.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코리안넷(korean.net)으로 접속해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응모작품을 첨부해야 한다. 응모작품을 따로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1편씩 파일로 저장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부문별 대상은 각각 500만원, 우수상 각 1명에게는 250만원,佳作(시 2명, 소설 2명, 수필수기 3명)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개별 전수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 수상자는 동일부문 응모가 불가능하지만 신인, 기성작가 관계없이 응모 가능하고 1개 이상 부문에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된다.

문의는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dbhye@korea.kr)에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MA 최대 제약사 다케다 640명 해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가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에 걸쳐 총 641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혔다.

다케다가 주 근로인력개발국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495명은 케임브리지 본사에서, 146명은 렉싱턴 소재 회사에서 해고된다.

다케다의 최고책임자 크리스토퍼 웨버는 9일, 구조조정

의 일환으로 이번 해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다케다는 2023년에 총 6,290명의 직원을 보유한 최대 고용주였다.

다케다는 주요 약품의 특허권을 잃으면서 절반 이상인 9억 달러의 수익이 감소해, 인력 감축 및 파이프라인 폐쇄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조정

으로 샌디에이고에 있는 연구소도 폐쇄될 예정이다.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계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cs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송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risti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hyu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폴리진
978.454.2043
jpark@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파크
617.447.0551
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유
617.780.7833
peter.yu@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헤
978.866.3248
jhe@bostonpremierrealty.com



여현유
401.535.3387
yehyun11@icloud.com



사라 유
617.638.5787
saryo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강수준
617.638.6973
kangsojun12@gmail.com



파사 송
213.563.0997
parksun12@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헤
413.507.1402
mikehe@bostonpremierrealty.com



선재해
617.913.3588
sunjaeh@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677.9387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ayoungkim@bostonpremierrealty.com



곽복숙
781.898.1214
kwaksuk@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17.510.1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이곤근
617.643.8723
egonkim@bostonpremierrealty.com



최준원
604.611.0182
heonjun@bostonpremierrealty.com



Tommy Woolfolk
617.274.5610
to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982
nancywang03@icloud.com



Shirley Zhao
857.22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Mian Yu
617.933.2713
mian.yu@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8
xian@bostonpremierrealty.com



Li Jiang
248.448.0117
lijiang@icloud.com



John Tran
617.638.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23.103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508.873.8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3.28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38.828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반문희 박
291.448.8589
hanna@bostonpremierrealty.com



재이그 김
781.956.0409
reagr@bostonpremierrealty.com



이성진
857.280.0434
is@bostonpremierrealty.com



Nini Bolanger
413.237.1886
nini11@icloud.com



2024년도 뉴잉글랜드 글짓기-손글씨 대회 시상식 가져

전체 대상 안유찬, 조민수 학생 총영사 상 영예 안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일, 이사장 오인식) 주최의 2024학년도 글짓기 및 손글씨 자랑대회에서 안유찬(고학년 부문), 조민수(저학년 부문) 학생이 전체 대상을 차지하며 총영사상을 수상했다. 제 1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한혜린 학생이 뉴잉글랜드 지역 대표로 선발되었다.

5월 11일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와 개인 참가자 등 1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뉴잉글랜드협의회 박현아 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행사 일주일 전 협의회는 미리 감독-심사위원 줌미팅을 갖고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행사 당일 진행을 순조롭게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Pre-school부터 12학년까지 전 부문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각자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한글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5월 25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남일 교장은 총영사를 대신해 저학년 부문 조민수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과 고학년 부문 안유찬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게 각각 총영사상을 수여했다. 올해 전체대상 수상자들은 이사회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되었다.

한편 '제 19회 나의 꿈 말하기 NE지역 대표'로는 한혜린(10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이 선발되어, 오는 6월 22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42차 학술대회 때 미국 전역의 10개 지역에서 선발된 각 지역 대표 학생들이 참가하는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대회 각 부문의 대상작품은 이번 주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지면에 소개될 예정이다.

협의회 남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를 더해가며 학생들의 글 수준이 깊어지고 있고 무척 감동적이라고 말하고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각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가한 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심사위원을 대표해 장명술 보스톤코리아 대표는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자유스런 표현력과 깊은 사고력, 어휘 사용능력 등 뛰어난 한글 글쓰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는 오는 6월 16일(일) 저녁 예정기이사회와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 가입문의와 2세교 육 지원 등은 협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naks.ne.us@gmail.com 또는 전화 (508)523-5389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대상-고학년(6-12학년) 부문	안유찬*12학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목: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나는~			
전체대상-저학년(Kinder-5학년) 부문	조민수* 5학년(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목: 내가 선생님이라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합한상	
Kinder	김성진(뉴잉글랜드)	곽영민(뉴잉글랜드)			
1학년	이희우(보스톤천주교)	김리안(뉴잉글랜드)	이준유(보스톤장로교회)	구한빛(보스톤천주교)	김용순(뉴잉글랜드)
2학년	김드론(뉴잉글랜드)	이주원(뉴잉글랜드)	이예은(뉴잉글랜드)	올레버마코(뉴잉글랜드)	김지규(뉴잉글랜드)
3학년	정지민(뉴잉글랜드)	이주안(뉴잉글랜드)	이유진(뉴잉글랜드)	이재은(보스톤장로교회)	김지현(뉴잉글랜드)
4학년	박보민(보스톤장로교회)	나정준(뉴잉글랜드)	박지우(뉴잉글랜드)	조혜나(뉴잉글랜드)	노다 헤리(뉴잉글랜드)
5학년	김수현(뉴잉글랜드)	권현준(뉴잉글랜드)	신아린(뉴잉글랜드)	문예진(뉴잉글랜드)	니주현(뉴잉글랜드)
6학년	신아리(내슈아한미중)	안현기(뉴잉글랜드)	허어래(보스톤천주교)	김도불(개인장기)	노희진(애머스트)
7학년	김충현(뉴잉글랜드)	나연재(뉴잉글랜드)	이연우(보스톤천주교)	조한하(뉴잉글랜드)	안윤기(뉴잉글랜드)
8학년	오유진(뉴잉글랜드)	홍아리(뉴잉글랜드)	양효기(뉴잉글랜드)		박지아(뉴잉글랜드)
9학년	안유찬(뉴잉글랜드)	최이레(뉴잉글랜드)	이다영(뉴잉글랜드)	나예준(뉴잉글랜드)	이어나(보스톤천주교)
10학년	이준호(뉴잉글랜드)	한혜린(뉴잉글랜드)	박종우(뉴잉글랜드)	김유진(뉴잉글랜드)	손선재(애머스트)
11-12	최유나(뉴잉글랜드)	문서연(뉴잉글랜드)	이화은(뉴잉글랜드)		최서원(뉴잉글랜드)

2024학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제2회 어린이 손글씨 자랑 대회 수상자

아름다운 우라글상		멋진 한글상	
Preschool	김이정(뉴잉글랜드)	Preschool	조 혜이준(뉴잉글랜드) 반예인(보스톤 천주교)
Pre-Kinder	이아연(누리) 한다을(뉴잉글랜드)	Pre-Kinder	이신우(보스톤 천주교)
Kinder	문예민, 권유나(뉴잉글랜드)	Kinder	김로미, 박인우(보스톤 천주교)
1학년	김보연, 반예인(보스톤 천주교)	1학년	조윤지(뉴잉글랜드)
2학년	노다 준수(뉴잉글랜드)	2학년	김미나, 김태린(보스톤 천주교)
3학년	신지아(뉴잉글랜드) 김보현(보스톤 천주교)	3학년	문형영, 이소은(뉴잉글랜드)
4-5학년	신재이(뉴잉글랜드) 김보현(보스톤 천주교)	4-5학년	김민우(뉴잉글랜드) 김보성(보스톤 천주교)
	조익정(보스톤장로교회) 손예지(보스톤 천주교)		김진우(뉴잉글랜드)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30th - June 6th, 2024

Available at H Mart Burlington & Quincy stores



Canned Light Standard + Hot Pepper Tuna

반·반 동원참치 & 고추참치

~~Reg. \$14.99~~

\$9.99 3.53 OZ X 4 CANS + 3.53 OZ X 4 CANS/PKG **LIMIT 4**



Head-on Louisiana Shrimp

루이지애나 자연산 머리새우 WILD/9-12'S/LB

\$6.99 **BIG SIZ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Participation limited to select stores. Please verify with your local store prior to visi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매사추세츠 세명중 한 명 넘게 굶주림에 시달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매사추세츠 성인 중 약 190만 명이 높은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으로 인해 굶주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레이트보스톤푸드뱅크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34%의 가정이 식량이 부족하거나 매달 충분한 음식을 구입할 돈이 없는 식량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제외한 유색인종이나 LGBTQ 거주자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높으며, 이들 중 60%는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음식과 전기, 가스비, 교통비 또는 주거비용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량 불안정성은 지난 2년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레이트보스톤푸드뱅크의 캐서린 디아마토 최고 책임자는 “팬데믹에서 벗어났다면 상황이 점차 향상되어야 하는데, 드러난 자료는 명확하게 그렇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다. 주 전역에 걸쳐 각 가정이 처참한 상황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매스제너럴브리검과 공동으로 약 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응답자들은 높은 주거비용, 낮은 임금,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꼽았다.

미 농수산부에 따르면, 그레이트 보스톤 지역의 식료품 물가는 7% 올라 미국 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푸드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정은 한 달에 약 \$60, 연간 \$3,000 정도가 주어지면 지속적인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스트보스턴 거주자 리시 게레로는 자신의 식료품 구입비를 대폭 줄였다고 말하며, 작은 소득 상승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의 스낵과 주요 식품 확보를 위해 리비어에 있는 푸드 팬트리를 이용한다. 그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25을 장보기에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살겠는가” 라고 말했다.

팬데믹 때는 각종 경제 지원금과 자녀 세금 크레딧, 그리고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면서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주정부의 푸드스탬프 확대 제도와 다른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 불안정을 겪는 주민의 대다수는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서 식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년의 37%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스탬프(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와 WIC 프로그램 등록자는 증가했지만, 수혜자들의 67%는 자신들을 식량 불안정 가정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프로그램 수령 금액이 약 2주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식량 불안정이 심한 곳은 서퓀, 브리스톨, 햄튼 카운티이며, 이들 주민의 45%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케이프코드에서도 20%가 굶주리며, 이는 점차 증가세에 있다.

먹거리의 안정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굶주린 가구의 구성원들은 불안증이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높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백만장자세를 바탕으로 전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74%의 식량 불안정 가정의 자녀들이 무료 급식을 선택했으며, 이 수치는 2019년에 비해 27% 증가한 것이다.



FIGURE 2 Demographics of Food Insecurity among Massachusetts Households i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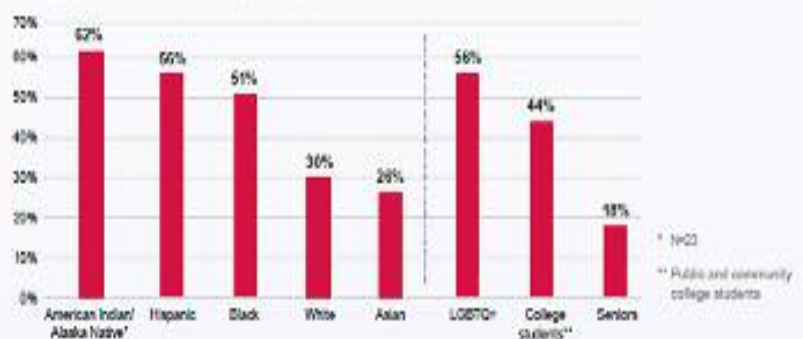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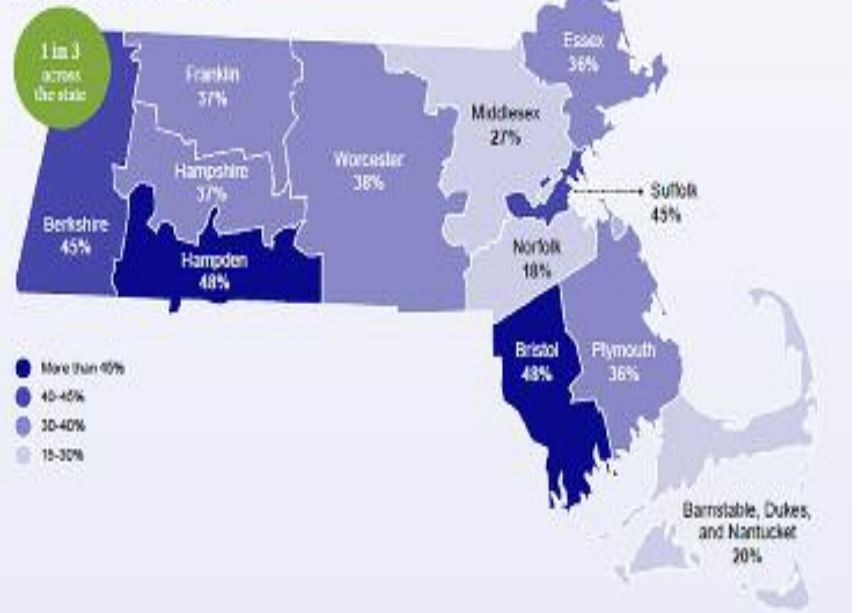


FIGURE 3 Regional Food Insecurity Map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정부조달사업에 뛰어든 박찬모씨, "여러분도 할 수 있다"

▶▶1면에 이어서

업체 증가율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한다. 어쩌면 사업을 하려는 한인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원인 중 하나다. 사업체가 적고 그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대형 한인 사업체가 등장하지 않아 한인 비즈니스가 축소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영세성을 극복하는 한 가지 열쇠는 소수민족사업자 인증과 정부조달 사업이다. 소수민족 사업체를 우대하는 정부 조달 사업은 사업 규모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민족사업자 인증(MBE, SDO 인증, SBA 8(a) 등)이 필요하다. 한인들이 이 같은 사업자 인증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이유는 정보를 모르거나, 자신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신청해보기도 전에 스스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도 모른다.

박찬모씨는 "비즈니스에 함몰되어 미국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를 잘 관리하면서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다. 단지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만이 (정부조달) 사업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박 씨의 사업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찬모씨는 매일 아침 4시에 일

어나 사업 관리를 위한 하루를 준비한다. 그는 지난해부터 정부 조달 사업을 시작해 정부에 사업(REF)을 신청해 놓았다. 에이어의 포트데븐에 있는 건축 사업은 단독으로 입찰해 가능성이 높다. 플로리다에서는 국립묘지 조경 사업에 입찰해 놓은 상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사업에도 입찰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정부조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정부의 소수민족 및 여성들에게 정부조달 사업의 기회를 주는 SBA 8(a) 인증서를 지난해 6월 획득한 후부터다. 그의 사업은 공항 면세점 내 식당사업에서 전국적 규모의 정부조달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가 공항에서 식당업을 열게 된 것도 그의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부지런한 발품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 주위에서 어떻게 공항 면세점 내에 사업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그는 로건 공항에 입점하게 된 계기가 LA의 프랜차이즈 업무 네트워킹 모임에서 들게 된 공항 면세점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기업(ACDBE) 신청 정보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이민해 LA에 살던 그가 2007년 보스턴으로 오게 된 계기였다.

박씨는 "조그만 맘애팍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주류사회에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들의 비즈니스 모임 정보를 찾아가 본다 보니 매사추세츠 공항 면세점

정보를 듣게 됐다. 알고 보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었다. 그걸 알아서 클릭하는 것까지가 문제였던 거다"라고 말했다. "평상시에 생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네트워킹, 비즈니스 모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간 결과로서 그걸 가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항 면세점은 새벽 4시에 문을 열어 밤 10시에 문을 닫기에 하루에 16시간 동안 가게를 지켜야 했다. 비록 LA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커피숍이었지만, 멕시코 파스트푸드점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계속 붙어있어야만 했다. 10여 년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본 공항에서 사업을 하나 더 제안했고, 다른 하나까지 3곳을 운영하게 됐다. 거의 15년간 이 공항 면세점 내 사업에만 집중했다. 박 씨는 "생활이 없었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그걸 토대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그는 2022년 말 이경석(Mathew Lee) 코비미국정부조달협회장에 대한 기사를 읽고 새로운 길로 진입하게 된다. 바로 정부 조달사업이다. 이경석 회장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자 이 회장은 박찬모 씨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해주고 코칭까지 제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쉬웠던 것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5차례나 거절을 당했다. 번거로운 서류 작업에 힘들었지만, 이



회장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그는 VOSB(재향 군인 소유 소기업) 및 SDVOSB(장애 재향 군인 소유 소기업)에도 지원하라는 권유를 받아 이를 획득했고, 이 도움으로 7개월 만인 2023년 6월 마침내 SBA로부터 SBA 8(a) 인증을 획득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SBA에서 제공하는 경영자 리더십 프로그램인 쓰라이브(T.H.R.I.V.E.)에 지원해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게 됐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생겼다.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로건커리토 LLC를 설립

해, 건축업, IT산업 및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SBA 8(a)는 9년 후 졸업하게 되므로, 9년 동안 사업을 최대한 확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존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기존 졸업 업체와 협업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경험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 2024년 5월, 박 씨의 사업 좌표점이다. 이제 사업의 지평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인 사업가 박찬모씨가 지난 4월 30일 스루스베리 소재 우스터인디아소사어티에서 열린 SBA 소수민족사업인증 설명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박씨의 강연은 가장 실질적인 내용을 흥미롭게 소개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좋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매튜 리 회장(좌측 뒷줄처음)과 코비 관계자들

정부조달사업 한눈에 소개한 책을 소개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KoBE(한인기업인협회)의 매튜 리 회장이 연방정부조달 사업을 소개하는 입문서 ‘도전! 미국정부조달사업’을 2022년 11월 출간해 한인독자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 분야를 자세히 다룬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다양한 정부조달사업을 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인 ‘팩스텍(FASSTech)’의 대표이기도 한 리 회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KoBE 회원들의 경험과 연방정부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을 펴냈다. 매튜 리 회장은 보스톤의 사업가 박찬모씨가 연방정부 조달 소수민족 인증인 SBA8(a)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워싱턴중앙일보가 출판 기획과 실무를 맡은 이 책은 정부조달이란, 미국 정부조달사업 시작 전 준비사항, 정부 조달제도, 조달시장 진출 방법, 살아남기 위한 키포인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메릴랜드 주·지방 정부 조달, 미 연방정부 제안서, 정부조달 회계시스템, 정부조달 기업 조직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영어 해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가격과 입찰, 드라이클리닝과 맞춤형수선, 인력조달사업 이야기 등 생생한 정부조달 성공 사례 37가지를 소개해 주목된다.

200페이지 분량이 주제별로 5장으로 나뉘었고 각장 마지막에는 요약 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책을 원하는 사람은 우송료 등을 내고 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

매튜 리 회장은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대한 한인사회와 한국 기업의 관심이 높지만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개서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3년 전부터 준비한 책이 마침내 출판돼 기쁘고 이 책이 조달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전 정부조달사업 책 주문 : <https://kobesa.org/membership/hsb@bostonkorea.com>



미국 1분기 성장률 잠정치 1.3%로 하향... 개인소비 둔화 여파

개인소비 2.5%→2.0%로 조정 영향... 경기 민감한 내구재 소비 크게 줄어 1분기 PCE 물가상승률 3.3%로 0.1%p 하향...美 성장세 둔화 우려 커질듯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올해 1분기 들어 미국 경제가 당초 집계됐던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이 1.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작년 4분기(3.4%) 대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1.6%)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2%)는 소폭 웃돌았다.

이는 2022년 2분기(-0.6%)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1분기 들어 소비와 수출, 정부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둔화된 가운데 개인소비가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2.5%→2.0%)된 게 전체 성장

률을 추가로 끌어내렸다. 개인소비의 1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1.68%포인트에서 1.34%포인트로 재평가됐다.

개인소비 중 서비스 증감률(4.0%→3.9%)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재화의 증감률(-0.4%→-1.9%)이 속보치 대비 크게 하향 조정됐다. 미국 가계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내구재 소비를 크게 줄인 게 추가로 통계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민간지출(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증가율 역시 속보치의 3.1%에서 2.8%로 내려갔다.

앞서 속보치 발표 당시 월가에서는 민간지출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하다는 점을 들어 1분기 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세부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민간지출이 당초 집계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미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추가로 반영해 산출한다.

한편 물가 지표도 속보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1분기 3.3%(연율),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3.6%로, 각각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물가지표다. 연준의 목표 물가상승률은 2%.

pan@yna.co.kr

HURAM | 성형외과

한 치의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관한 중요한 내용, 휴람에 꼭 물어주세요!
좋은 휴람기반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합니다. 휴람이 보장되는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HURAM 성형이벤트
2024년 5월 31일 ~ 6월 30일

100% 할인	150% 할인	200% 할인	300% 할인	400% 할인	500% 할인
134%	154%	160%	165%	170%	175%

김수남 대표
1-800-888-2999
www.huram.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화색곰의 공격에서 살아난 MA 남성, 곰 대처법이 살렸다

총에 맞은 것보다 삶에서 가장 공포스런 죽음의 순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일주일 전 그리즐리 곰의 공격을 받고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매사추세츠 사우스 헤이들리 거주 남성이 공격받은 자세한 내막을 공개했다.

35세의 웨인 버크 씨는 부상당해 제대한 육군 예비역으로, 총에 맞았고 박격포 및 사제 폭탄 공격을 경험했었다. 그러나 그는 5월 19일 그리즐리 곰의 공격이 가장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버크 씨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비디오 영상을 올렸다” 고 말했다.

버크 씨는 5월 19일 아내와 같이 회색 올빼미 사진을 찍기 위해 시그널 마운틴의 와이오밍 그랜드 테턴 내셔널 파크를 방문했다. 아내에게 1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1시간 25분이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곧바로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을 택해 돌아갔다. 도중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노래를 부르며 크게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갑작스러운 그리즐리 곰과의 마주침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그는 작은 새끼 그리즐리 곰이 50에서 70야드 밖에서 언덕 위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 순간 바로 베어 스프레이를 꺼내들었으나 이미 어미 곰은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전에 덮쳐들었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두 손으로 목을 감싸 목을 물리는 것을 방지했다. 곰은 그의 어

깨와 오른쪽 어깨를 물었고 그의 등에 올라탄 채 다리를 물고 그를 들어 몇 차례 땅에 내쳤다. 양다리를 각각 세 차례씩 물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자 곰은 그의 머리 쪽을 주목했다. 곰이 목을 물으려 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베어 스프레이를 물었으며, 곰의 입안에서 이것이 터지면서 곰은 그를 두고 도망쳤다.

그는 곰이 사라진 반대 방향으로 달려 아내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다. 즉시 그는 아내에게 “공격당했다” 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다리의 상처를 백팩과 카메라, 그리고 여행용 복대 가방으로 지혈해 과다한 출혈을 막고 있을 때 아내가 전화해서 구조를 도왔다.

그는 칼을 꺼내들고 나무에 기대어 누워 있었으며 거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구조대를 기다리며 그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아내에게 남겼다.

구조팀은 도착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헬기로 그를 후송했다. 와이오밍 잭슨에 있는 세인트 존스 메디컬센터에서는 그의 상처를 깨끗이 한 후 봉합했다.

버크 씨는 소셜 미디어에 “나를 살린 첫 번째 것은 곰의 공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베어 스프레이를 준비해 간 것” 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자신을 공격한 어미 곰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곰을 죽이지 말아 줄 것을 호소했다.

당국은 곰의 공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취하는 조치로 이 산의 모든 출입을 금지했다. 산 관리 당국은 그랜드 테턴 내셔널 파크를 비롯한 옐로우스톤 지역에 약 1천여 마리



그리즐리 베어 (사진 = pixabay)

의 그리즐리 곰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내셔널공원서비스의 곰 대처법이다.

음식물을 밖에 두지 말라.

야영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음식물 저장 규정을 준수한다. 쿨러, 조리 용기, 동물 사료 등을 베어 박스 또는 차 안에 보관한다.

쓰레기를 꼭 곰방지 텀스터에 넣는다.

텐트 안에서 요리하거나 먹지 말며, 음식물이나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텐트 안에 두지 말 것.

곰을 목격하면 최소한 100야드(대략 100미터) 거리를 유지한다. 사진을 찍거나 관찰을 원하는 경우 망원 렌즈 또는 망원 장비를

통해서 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 안전 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트레일에 들어가는 경우 주위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갖는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소리를 내라. 또는 계곡물이나 바람이 불 경우에도 소리를 내라.

베어 스프레이를 항상 휴대하며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쉽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명 이상의 사람과 함께 하이킹을 한다. 곰을 마주치면 도망가지 말고 조금씩 뒷걸음 쳐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성 앙투안 드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yahoo.com

재택근무 및 온라인 회의 증가...미국 외로운 직장인 급증

온라인 회의 늘고 대면회의는 줄어...이직률 · 결근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지난 4년간 대면 대신 온라인 회의가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회사원들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회사원들의 업무 방식이 디지털 연계성은 높아지고 개인적 연결성은 떨어지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고립의 유행병'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미국인들은 온라인 회의 비중을 늘리는 등 업무 방식을 대면에서 원격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인들이 온라인 회의에 쓰는 시간은 3배 증가했고, 반대로 직장에서 다른 근로자와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전체 업무 시간의 4분의 1 정도를 온라인 회의에 쓰는 반면, 대면 회의는 업무 시간의 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외로움은 커졌다.

보험회사인 시그나가 미국인 1만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외롭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2018년(46%)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뉴욕에서 사람들 간의 모임을 운영하는 회사인 '피플후드'를 설립한 줄리 라이스는 "뉴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썸'으로 대화한다"라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관계를 맺었든 지금 그 관계는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단절과 외로움은 이직률과 결근을 증가시켰고,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든 문제가 되고 있다.

시그나의 조사에 따르면 외로움으로 인한 결근으로 연간 1천540억달러(약 209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꽃 유통업체 1-800-플라워스의 제임스 매켄 회장은 "일은 사회적 것이며 단순한 급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1-800-플라워스는 직원의 외로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사무실 근무를 주 3일에서 4일로 늘렸다고 WSJ은 전했다.

아울러 일에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사무실 내 잡담에도 예상 이상으로 이점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럿거스 대학 경영대 제시카 메토트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잡담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동료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ylee@yna.co.kr



'시 불'에 발전업체 등 전통산업 수혜...주기도 강세

S&P 500 유틸리티 업종 3개월새 15% ↑ ...데이터센터 연관업종 수혜 기대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미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인공지능과 연관된 승자 종목에 전통산업에서 찾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세기 골드러시 시절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찾던 이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Picks and Shovels)을 팔던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투자전략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 유틸리티 업종의 3개월 수익률은 15%로, 다른 업종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 기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4.2% 수준이었다.

전력업체 등이 포함된 유틸리티 업종은 일반적으로 기술주와는 거리가 먼 전통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 확산으로 전력 소비량이 큰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 기대가 유틸리티 종목 주가를 밀어 올렸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현 미국 내 전력 수요의 4.5% 수준을

차지하지만, 2030년에는 그 비중이 10.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나 발전소의 확장 및 추가 건립 기대는 S&P 500 지수 구성종목 중 에너지(6.4%)나 소재(5.1%) 업종의 강세로도 이어지고 있다.

엔비디아와 같이 인공지능 관련 고성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건설과 연관된 전통산업 업종들도 인공지능 붐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실적발표에서 기업들과 국가들이 기존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라이프투자의 로렌 굿윈 최고시장전략가는 "데이터센터 건설업자와 운영업자, 발전소 등이 현재 투자기회가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UBS의 나디아 노벨 수석 미국주식전략가는 "인공지능 관련 주가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가 기본이지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91) 다우(Dow) 지수 40,000

미국 다우 지수가 40,000을 돌파했다. 주식시장 다우 지수가 10,00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려 103년이란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지수가 10,000에서 20,000은 20년, 20,000에서 30,000은 4년, 30,000에서 40,000이 되기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 새로운 기록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는 10K에서 20K는 100%, 20K에서 30K는 50%, 그리고 30K에서 40K는 33%만 증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 미디어는 주식시장 상승을 연일 전한다. 이런 상황에 투자자 마음도 갈팡질팡해진다. 이런 상승하는 장에서 미리 투자하지 못한 것에 후회가 막심이며 지금 투자하지나 비싼 값에 투자하는 것 같다. 이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내가 투자하면 폭락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다.

“주식시장 폭락을 준비하거나 폭락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주식시장 폭락 자체로 잃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실” 한다고 피델리티에서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며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형성했던 펀드 매니

저 피터 린치(Peter Lynch)가 말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꾸준히 장 투자자 해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지난 4월 시장이 4% 하락했었지만, 올해 약 11% 상승했다. 과거 주식시장에 의하면 시장이 5% 하락한 후에는 시장은 17% 상승했다. 2022년 10월 후 상승한 주식시장은 50%나 된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상승장은 평균 108% 증가했기에 과거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 이후 주식시장은 새로운 최고점을 수없이 반복했다.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주식시장 최고점에서만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10.3% 그리고 최고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11.3%로 큰 차이가 없다. 최고점에만 투자했던 운이 억세게 나쁜 투자자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산이 불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새로운 최고점을 25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그시점의 최고점

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최고점이 아니다. 지금의 최고점이 얼마 후에는 최저점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누구에게나 ‘내가 투자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투자하는 짧은 시간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락한 시장은 약 1.5년이지만, 상승한 시장은 4.5년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주식시장의 새로운 기록 40,000이 된 것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투자하기 전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다. 10여 년 후 노후 자금 마련은 투자위험성을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투자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제대로 형성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투자 위험은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분배 해야 한다. 주식은 지난 9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 그리고 채권은 5.5%이다. 채권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투자 위험성은 주식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투자종목(Sector)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 외국 주식, 미국 주식, 주식에서도 대기업 회사, 작은 회사, 부동산, 등 어느 종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여기 저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채권투자도 주식처럼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

지난 5년 주식시장 연평균 무려 14% 이상이다. 지난 10년도 연평균 수익률은 12%이다. 나의 투자 돈이 3배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에 나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받을 수 없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내 돈이 불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3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실의 장남 하종을 이어 12세 풍월주에 오른 김보리의 부모는 이화랑(4세 풍월주 역임)과 숙명공주이다. 숙명은 보리를 가졌을 때 황색 신록神鹿의 태몽을 꾸고 그를 낳았다. 보리는 형 원광과 함께 배움에 힘써 보통 아이들보다 뛰어났고, 늘 큰 뜻을 품고 성장하였다. 열두 살 무렵 하종의 문하에 들어가 화랑이 되었다. 나이는 하종보다 9살 아래였지만 늘 감정과 생각이 같아서 동복형제나 다름없었다.

한편 561년 무렵, 진흥왕이 미실의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사도왕후를 통하여 입궁하려고 명하였고, 그녀의 남편 세종을 변방으로 출정시켰다. 세종의 손윗누이인 숙명은 미실을 입궁 첫날부터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카인 미실의 아들 하종은 아들처럼 사랑하였다. 숙명은 늘 하종에게 “나의 아버지 태종각간(이사부)은 곧 너의 할아버지이다. 하늘에 다시 없고 땅에도 다시 없는 대영웅이다. 너는 마땅히 신神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항상 말했다. 명석한 하종은 대답은 하였지만 따르지는 않았다. 어머니 미실이 아시공과 옥진을 호신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아시는 미진부의 아버지로 미실의 조부이고, 옥진은 묘도의 어머니이니 미실의 외조모이다).

585년, 하종은 21세의 나이에 우방대화랑右

方大花郎(483) 이 되었다. 그리고 화랑에 갓 입문한 12살의 고종사촌 동생인 보리를 데리고 신궁으로 참배하러 갔다. 신궁방문이 처음인 보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윽고 문을 열고 입장하니 범흥왕을 비롯하여 범흥왕의 후궁 옥진, 아시, 태종 등 전대의 영웅들이 신궁 신라의 신궁에서 신으로 모셔져 있었다. 앞에 서서 입장한 하종은 옥진공주에게 먼저 절하고 나서 범흥왕에게 절하였다. 이에 보리가 어리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오 늘 가진 모든 귀한 것은 선제先帝가 내려준 것인데, 어찌하여 그를 뒤로 합니까?” 라고 물으니, 하종이 “선제 또한 말하기를 ‘역조창생이 나를 신으로 여기는데 나는 옥진을 신으로 여긴다’ 했으며, 영실공 또한 옥진공주에게 먼저 절하고 나서 제후에게 절했다. 이것이 그상像이다. 대개 미실이 가르친 바이다” 라고 대답했다. 어린 보리는 하는 수 없이 하종을 따랐다. 그다음에 그들은 아시에게 절하고 나서 태종에게 절하였다. 보리는 그 순서 또한 의심을 가졌지만 개의치 않았다(이어지는 화랑세기의 기록에는 탈자가 많아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위의 하종의 대답속에서 옥진이 박영실보다 먼저 죽었음을 알 수 있다. 범흥왕의 누이 보현공주의 아들인 박영실은 옥진과 결혼하였지만, 결혼식날 친히 참석한 범흥왕이 그만 옥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그녀를 후궁으로 삼았고, 대신 과부가 된 딸 지소를 영실과 맺어주었다).

미실과 숙명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서

로의 아들들은 좋아하여 조카를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였다. 동시에 585년에 전방대화랑이 된 하종은 화랑도에 갓 입문한 12살의 보리를 우방화랑으로 삼아 보살펴 주었으니, 보리는 많은 낭도들의 부러움을 샀다. 심지어 미실의 동생 미생도 보리에게 “너는 나보다 낫다” 며 칭찬하였다.

보리 역시 하종에게 충성을 다하며 곁을 떠나거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미실 또한 보리를 칭찬하며 늘 “숙명공주에게 좋은 아들이 있으니 나보다 복도 많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매번 궁중에서 특식을 내리면 반드시 보리를 불러 함께 나누어 먹었다. 결국 숙명은 미실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 누그러들었고, 만년에는 서로 왕래하면서 사이가 좋아졌다.

한편, 이 무렵 만호태후(진평왕의 모후)는 숙명공주와 함께 진골정통의 인맥姻脈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맞서 미실은 자신의 딸 애함애숨을 보리와 혼인시켜 대원신통의 세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만호는 미실의 계획을 거절하고 자신의 딸 만룡낭주(아버지는 정숙태자이다)로 하여금 보리의 적처嫡妻로 삼았다. 보리의 아버지 이화랑이 그들의 나이가 어렸기에 망설였지만, 어머니인 숙명은 진흥왕과 사도왕후가 7살에 혼인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의 즐거움을 말해주었다. 결국 이 화랑의 침묵으로 숙명과 만호는 자녀들의 혼인을 성사시켰다. 만호는 먼저 만룡을 친히 신궁으로 데려가 공주례를 고하고 곧이어 포사鮑師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미실의 아들 하종은 화명花明을 좋아하였다. 화명은 보리의 누나이니 부모는 이화랑과 숙명이다. 미실은 이미 보리를 사위로 삼지 못했으니 화명을 하종의 적처, 즉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만호태후는 이것도 반대하고 화명과 동생 옥명을 진평왕의 후궁으로 들여보냈다. 미실은 많이 언짢아 하였지만 별다른 방도는 없었다. 이에 보리는 자신이 조카이지 만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세월이 가면 어찌 또 혼인하는 날이 없겠나며 미실을 위로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리는 양인통을 오가며 서로 화해시켰다.

이에 미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뜻을 가진’ 보리가 능히 낭도들을 이끌 자질이 있으니 아들 하종에게 풍월주의 위치를 그에게 양위하도록 하였다. 보리는 사양했지만 풍월주는 보리에게로 이어졌다. 그때가 신해년(591년) 정월이었다. 김서현(김유신의 아버지)을 부제로 삼았다.

483) 화랑도의 직제는 우두머리 풍월주 다음으로 부제, 그리고 전방대화랑과 좌우대화랑이 상충부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전좌우방대화랑의 서열에 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데, 화랑세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방, 좌방, 전방이 그 순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3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겸손(謙遜)한 사람

겸손(謙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겸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 겸손은 온유함, 낮아짐, 그리고 자기의 의가 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3:12를 포함한 다른 성경 구절에 언급되는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자 그대로 “마음의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겸손이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차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다(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할 자들만이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겸손은 그리스도의 필수 조건이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구원의 필요성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삶에 적용해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삶이란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현대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마음은 커녕 관심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그것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일이라서 가끔은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그것이 굳어지고 깊어지면 상처가 되는 일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니 머릿속에서의 생각이 나 아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다저렇다 뒷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어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친구와 친구가 안부를 물어야 할 이들이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소원해지기 시작한다. 이야기(수다)를 많이 한다고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속의 것들을 나눌 그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만남을 공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겸손’을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의 시대’를 살아간다. 사역자의 길을 걷는 발걸음과 상담 방송과 기독교 상담을 하는 내 입장에서 ‘우울’이라는 단어가 민감한 편이다. 우울이라는 시작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중요한 까닭이다. 그것은 그 시작을 알면 ‘우울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병이든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비밀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묻어두고 쌓아두면 큰 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자살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이다. 자살은 10대부터 30대 연

령층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된다고 한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가슴 답답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대한 경쟁률이 높고 삶에 대해 버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삶의 질은 높아졌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이 문제를 예방할 대책들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함께 가야 하는 시대를 산다. 21세기는 관계의 시대라고 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한 것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채워주고 품어주는 일이 겸손(謙遜)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謙遜)이다. 이렇게 살아야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지나치지 않을 만큼에서의 배려와 존중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시조를 읽다



김회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튀어야 하는 건가. 돋보여 기억에 남게 말해야 하는 건가.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말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더하다. 막말에 거침이 없어 혀를 차게 한다.

몇해 전인가. 청와대 (당시에는 대통령 집무처가 청와대였다.) 총무비서관이 시집을 발간했다고 했다. 그런데 시가 아닌 노골적으로 해괴한 내용이라 했다. 차마 민망해 나역시 찾아 읽어볼 엄두도 생각도 없다. 계집아이 X가슴 어찌고 저찌고라 했다던가. 성추행에 가까운 망측한 표현이라 했다. 시에 대한 모독이라 여기는데, 책으로까지 퍼냈다 했다.

조선중기에 방랑시인 김삿갓이 있었다. 해학과 풍자가 넘쳐 흐르던 그 묵객을 말이다. 그의 본명은 김병연이라 했고, 김립(삿갓)이라고도 불리운다. 시 한편을 소개하기로 한다. 차마 한문(漢文)으로 적어 읽기엔 민망할테니, 한글로 풀어 낸다. 뜻이야

아름답고 가상하기 이룰바 없다.

스로 알고자 하면 깨달음이 늦고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면 그 깨우침이 쉽다.

한국의 어느 누군, 오래전에 내 있던 상 소리가 흠이 되어 공천이 취소되었다고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제 허물을 돌아보아야 될 일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말과 몸가짐을 단단히 챙겨야 할지니.

아니, 입단속과 몸단속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깨달음이 늦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살펴야 하는 바.

삿갓은 하늘을 차마 우러러 볼수없어 깊이 눌러쓴다고 했다. 땡땡이래 시원하긴 하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21:34)



한국시조(時調)를 몇편 골라 읽었다. 시조 나시는 읽는다 했다만 읊조리지는 않았다. 소리내어 읽지도 않았다. 조선시대, 왕자님이 지은 시조이다. 부디 인간만사에 삼가고 삼가하라는 권고이며 입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입들만 성하여서
제허물 전허있고 남의흥을 보는구나
남의흥 보겨라말고 제허물을 고치고자
(인평대군, 세상사람들이)

Shaping young minds is like discovering diamonds in the rough

1ST DIAMOND CUP GOLF CHAMPIONSHIP



DIAMOND CUP

GOLF

Monday, 1st. July 2024'
BLUE HILL COUNTRY CLUB
23 PECUNIT STREET
CANTON MA 02021

PRIZE

4 CLOSET TO THE PIN

**EACH WINNER RECIVES 1 CARAT
PREMIUM QUALITY CVD DIAMOND**

*1ST PLACE: \$2000/ TEAM
2ND PLACE: \$1500/ TEAM
3RD PLACE: \$1000/TEAM
LONGEST DRIVE: \$215
LUNCH, DINNER AND AFTER PARTY WITH DI*

CHAMPIONSHIP TYPE

*TYPE: 4 PERSON SCRAMBLE
PARTICIPANT: 144
REQUIREMENT: 18+ MALE/
FEMALE GHIN NOT REQUIRED*



REGISTER NOW

US FUTURE LEADERSHIP FOUNDATION

www.usfutureleadership.org

Registration: formfacade.com/sm/tu4ab5N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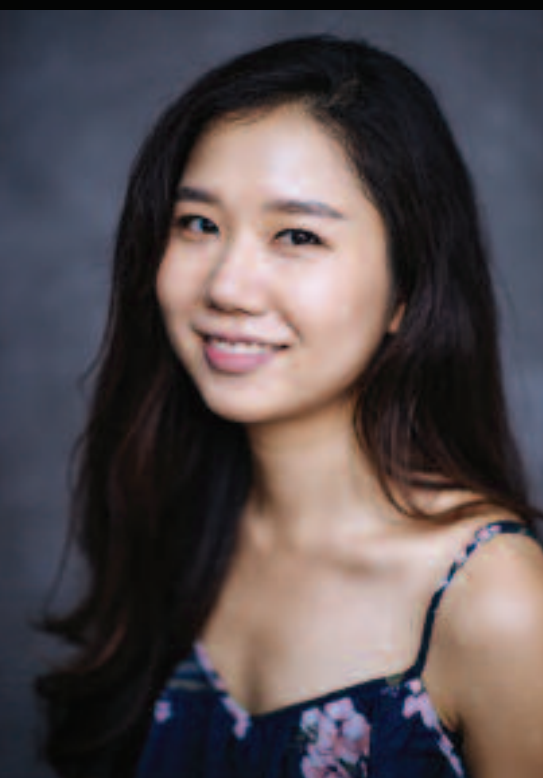
2014년 파블로 카잘스 국제 콩쿨 우승자

문태국 첼로 독주회

이지영 피아노

6월 22일 (토)
저녁 7시반

Williams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PROGRAM

- Fauré*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1
- Schumann* Fantasiestücke, Op. 73
- Yun* Nore
- Mendelssohn* Sonata for Cello and Piano No. 2

티켓:

www.kcsboston.org

일반 \$30/ Senior \$20
학생 무료 (등록 필)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신세계서울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제는 줄기세포 치료 시대!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으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으로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신세계서울병원 관절센터 정진화원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나이가 들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병이 있다. 바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찾아오는 관절염이다. 관절염은 관절 부위라면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하중이 가장 많이 부하되는 무릎에 발생하는 관절염이 대표적이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소실되어 관절 사이 뼈와 뼈가 맞닿게 되며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으면 초기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진통소염제와 같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해 증상완화가 가능하

다. 무릎 관절염은 크게 1-4단계로 나뉘는데 말기인 4기라면 인공관절수술을 고려해야 하지만 2-3단계(중기) 관절염이라면, 최근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어 각광받고 있는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를 통해 연골 재생 및 통증, 관절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기 관절염은 환자의 무릎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무릎관절 간의 간격이 10~50% 정도 좁아졌으면 2기, 50% 이상 좁아졌으면 3기, 아예 뼈끼리 맞닿아 있으면 4기로 볼 수 있다. 이중 2-3기를 중기 관절염이라고 한다.

무릎 관절염 2-3단계 환자에 효과적인 골수 줄기세포 주사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치료면서 자신의 관절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치료방법은 본인의 골반에서 자가 골수를 채취한 다음 고농축화 과정을 거쳐 양질의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주사치료가기 때문에 절개가

없고, 통증도 거의 없어 당일 또는 1일 입원으로 치료 후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또한 통증 및 관절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본인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반응 등의 후유증 위험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신세계서울병원 관절센터 정진화 병원장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다. 중기 관절염의 경우에도 통증조절이 쉽지 않아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줄기세포 주사는 신체적 부담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시기 또한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계단을 내려올 때 시큰한 통증이 지속되고, 무릎이 반복적으로 붓거나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 등 관절 통증이 지속되고 변형이 나타날 때 시행하면 효과적이다”,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최대 2년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 환자분에 따라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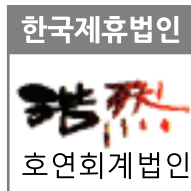
후에는 별다른 일상생활에 제약을 두지는 않지만, 연골이 잘 재생될 수 있도록 1~3주 정도 심한 체중 부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권유한다.” 라고 전했다.

“관절염...이제는 줄기세포 치료 시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오늘 투표하면 백악관 · 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 천하

더힐 · 선거분석업체, 트럼프 승리 확률 58%...상 · 하원도 공화 우세 대선승패 좌우 6개 경합주 중 미시간 제외 5개주서 트럼프 앞서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열리는 대선에서 이기고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매체 더힐과 선거분석업체 '디시즌 데스크 HQ'는 29일(현지시간) 자체 예측 모델을 돌린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58%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제도는 각 주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전부(네브래스카와 메인주 제외) 가져가는 구조라서 대선 승패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세가 비슷한 경합주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 미시간을 제외하고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2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256명을 가져갈 것으로 더힐과 '디시즌 데스크 HQ'는 전망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게서 가져올 확률은 79%로 평가됐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서는 몬태나와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상원을 내줄 게 거의 확실하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64%로 나타났다.

모델은 각당의 등록 유권자 수, 인구통계, 과거 선거 결과, 선거자금, 여론조사 평균 등 200여개 데이터를 토대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라 선거일까지 남은 약 5개월 동안 달라질 수 있다.

'디시즌 데스크 HQ'의 데이터 과학 담당 인스콧 트랜터는 "사람들은 오늘 투표하지 않으며, 누구도 대통령을 뽑거나 상원의원을 뽑지는 않는다. 만약 사람들이 오늘 투표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힐은 이번 예측 결과가 이미 불안해하는 민주당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관측했



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에 기여한 주요 유권자층인 젊은 이들과 유색 인종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경제 상황과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캠프는 여론조사 결과를 걱정하기에는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수 전문가가 공화당 압승을 전망했던 2022년 중간선거를 민주당이 이긴 사실에 주목한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이번 예측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약점이 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bluekey@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2024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고학년 부문 전체대상(총영사상)]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나는...



12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안유진

이미 세상을 떠난 유명인사들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장 훌륭한 업적과 그의 뛰어난 재능이나 노력을 기억할 것이다. 마틴루터킹을 예로 들자면 그가 흑인 인권 역사의 남긴 긍정적 영향은 기억해도 그의 문란한 사생활을 기억하는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나의 모습은 '무지개'이다. 우선 무지개를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의 색깔이 가장 선명하게 눈에 띈다. 나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사람들이 자주 보는 나의 색깔은 아마 나의 외적인 모습, 나의 내향적이고 조용한 성격,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미술 '러버'로서의 나 일 것이다. 그러나 무지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 일곱 가지 색깔의 사이,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를 보면 무수하게 많은 스펙트럼을 지나고 밝은 빨강, 다홍, 그리고 주황색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조용해도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장난기 많고 뽀뽀 소리도 지르고, 클래식 말고도 J-Pop이나 한국가곡을 듣는 등 사람들이 첫눈에 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나에게도 당연하지만 불완전하고 어두운 색깔들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내가 갖고 싶었던 액체 고물을 사고 싶어서 착한 척하면서 동생의 만원짜리 지폐를 빼돌린 적도 있고, 부주의하고 게을러서 오랫동안 준비하던 대학원서를 제대로 내지 못한 적도 있다. 무지

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무지개가 지나고 있는 다양한 색깔들의 존재를 이해해야 하듯이 나는 사람들이 나의 다방면에 모습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해하고 접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나는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나의 모습보다는 불완전하면서도 인간성 있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자라 오면서 다양한 친구, 가족,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들은 각자 이해하고 기억하는 나의 색깔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공통점이 있다. 우리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웃고 응원 해주고 때로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다툼 적도 있지만 무지개도 멀리서 바라보면 그 광활한 크기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듯이 그러한 순간들은 결국에는 추억이 된다. 다투거나 운 추억을 떠올리며 '그때는 그랬었지' 하며 껄껄 웃거나 우리의 모습에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한 추억들은 더 나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고 같이 시간을 함께 해준 이에게 고마움과 더 깊은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내가 세상을 떠나다면 나는 폭풍우 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행복하지만 무언가가 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정말로 먹구름 속에 불완전하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 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학년 부문 전체대상(총영사상)]

내가 선생님이라면

5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조민수

"곰돌이 인형 학생!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면 안돼요! 선생님이 곰돌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유치원을 다녔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 인형들과 같이 "학교 놀이" 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히 생각해 보니, '내가 진짜 선생님이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빙빙 돌아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 봤나요? 저는 일단 "선생님" 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들은 원래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정성껏 가르치고 싶은 마음, 배우는 주제를 배울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먼저 그 배우는 주제나 과목을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배우고 싶도록 만들게 할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할려고 할 선생님들은 수업을 더 지루하게 만들어요. 가르치는 감정을, 마음이 없는 것처럼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제 수업

을 더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거예요. 사람들이 배우는 흥미를 가지게 저는 수업에서는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게임같이 할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인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잘 할 수 있고, 자신있는 과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가르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가르칠까?' 하면서 드디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쓰기 수업을 가르칠거예요. 그리고 저는 막 혼내거나 숙제를 너무 많이 주는 선생님이 안 될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으로서 그런 선생님들을 싫어해요. 그 대신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면, 얼마나 많이 가르쳐도 실력이 안올라갈거예요. 결론으로, 저는 잘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마음을 키우는 글쓰기 선생님이 될거예요.

[Kinder 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놀이터

Kinder학년 김성진(뉴잉글랜드)

슬라이드 재미췌요. 왜냐면 하늘에 땅에서 재미췌요. 시소도 재미췌요. 왜냐면 하늘나라 가는 느낌에요. 놀이터는 재미췌요. 다 놀이 터 제민는 마음은 다 제민는 거뜔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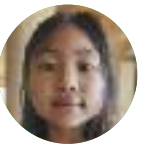
[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내 생일

1학년 김도은(뉴잉글랜드)

저는 생일하면 제 5살 생일 가장 생각나요. 왜냐면 그때 가족이랑 파티도하고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분홍색 자전거를 받았기 때문이예요. 자전거에는 바구니도 있고 저는 제 인형 고양이 딸기를 자전거 탈때 너어요. 제 자전거에는 바구니 말

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바로 종이예요. 처음에는 바퀴가 4개 있었는데 이젠 2개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이젠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예요. 저는 그래서 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로 딸기를 태워주는 것도 재미있어요.



[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내 생일

1학년 이지우(뉴잉글랜드)

나는 여름생일이예요. 그래서 보통 생일케이크를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해요. 그리고 저는 네 일곱살 생일을 한국에서 보낼거예요. 거기에서 파티일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가지 생일을 보낼거예요.

알가요. 너무 기대가 되요. 저는 선물이 모든 상관이 없어요. 근대요.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생일에는 도대체 왜 생일에 케이크를 준비하는 걸가요. 궁금해 죽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일이 얼마나 존중해조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린돼요. 생일 초를 왜 켜는지 알아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아주 많이 궁금해요. 도대체 그 이유 몰가요. 저는 그것들이 궁금해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 끝나요.



[2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바다

2학년 한다연(뉴잉글랜드)

저는 바다에 가는게 정말 좋아요. 첫째로는 바다에 가면 물에서 수영도 하고 물론 시원하게 있을 수도 있고 동생들이라 물장난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로는 그늘에 앉아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편하게 쉬는 것도 좋아요. 셋째로는 모래에서 모래놀이를 할수있

고 몸을 모래로 덮어서 있으면 몸이 따뜻하게 좋아요. 또 해가 내려갈때 바다 쪽을 보면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면 나쁜 기분이 풀리고 행복해져요. 저는 이런것 때문에 바다에 가는 것이 행복해요.



[3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디즈니 소풍

3학년 정지안(뉴잉글랜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소풍은 디즈니 랜드에 갔을 때에 대한 소풍이예요. 이 글은 뭘 했는지와 뭐가 맘에 들었던 것에 대한 글이예요. 먼저 나는 엄마와 미니 마우스 머리띠를 디즈니 랜드에 한개에 선물 가게에서 샀어요. 검은색이였어요. 사고나서 매트훈복슬래드라는 놀이기구 타려고 머리띠를 카시트에다

가 놀려고 했는데 엄마가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복슬래드는 무척 빨라서 머리띠를 가져가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내가 좀 울자 엄마가 농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카시트에다가 댔어요. 매트훈복슬래드를 탔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제 뭐가 재미있었는지 알려드리겠어요. ▶▶23면으로 계속





2024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22면에 이어서

이제 뭐가 재미있었는지 알려드리겠어요. 첫째, 엄마의 농담 때문에 아주 황당했는데, 인상이 많이 깊었어요. 둘째, 어마어마하게 빨랐는 봄슬래드가 좋았어요. 1초에 끝난다는게 아니고 “아아아아!” 소리치게 정도에 빨랐어요. 셋째 예티를 몇번 본 것 같아요!

이 글이 디즈니랜드에 갔을때에 대한 글이에요. 아, 그리고 재미있는게 한가지 더 있어요. 먼저 이걸 알려드리겠어요. 아빠와 동생 지오와 같이 왔어요. 이제 재미있는 일, 내 머리띠는 날아가지 않았지만 아빠 모자가 날이 갔어요! 하하하하

[4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4학년 백보민(보스턴 장로교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은 바로 홍하슬 선생님이야. 홍하슬 선생님은 나의 한글학교 선생님이었으며 지금은 나의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첫째, 어린 친구들과 소통을 잘 한다. 홍하슬 선생님은 목소리가 맑고 청량하다. 그래서인지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 하신다. 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두번째,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 선생님은 우리가 어떻게 힘들거나 모르는 것들 등, 다양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 선생님은 단어 하나 하나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단어의 뜻,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부 다 가르쳐

주셔서 선생님께 배운 단어를 아주 많이 쓰고 있다. 홍하슬 선생님은 우리 한글학교에서 두번째로 제일 높은 반을 맡고 계신다. 내가 홍하슬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셨던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아주 재미있는 만들기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나는 어비어날을 위한 종이 꽃 만들기를 제일 좋아했다. 만들기 단계는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 래도 시간을 많이 소비해 조금 힘들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바로 홍하슬 선생님이야!

[5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여름방학

5학년 김수현(뉴잉글랜드)



여름방학이란, 들으면 반가운 말이죠. 여름방학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거라 생각해요.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학교도 쉬고, 한국학교도 쉬고, 그냥 여유롭게 보낼수도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여름캠프나 여행으로 차죠. 여행은 또 다른 좋은 것이죠. 사는 도시가 아닌, 지역이 아닌, 아니면 외국에 있는 데를 가서 더욱이 세상을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더운 날씨에 수영과 아이스크림이 딱이죠. 저는 수영을 옛날에 배웠는데, 코로나때 수영을 너무 못해서 까막었어요. 하지만 수영장이나 바닷가를 가서 조금씩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특히 캠프를 좋아해요. 운동캠프를 특히요. 따뜻한 여름 날씨에

운동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이 아닌 캠프도 뭔가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아이디텍(ID Tech)이라는 코딩을 배우고 그걸로 게임이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캠프를 한번 했었어요. 예전부터 누나 형아가 했던 캠프였는데 저도 한번해보고 싶어서 해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할 것이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 갈수있게 었어요. 한국에 가서 친척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누나가 11학년이 되는 중요한 여름이라 가족끼리 여행은 못가지만, 행복한 여름을 즐길수 있기를 원해요.

[6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아름다운 한복

6학년 신아라(내슈아 한마음)



오색찬란한 원단과 화려한 무늬. 이것들이 한국의 전통복인 한복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근래 들어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만큼 한복의 인기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 경복궁에는 한복을 입은 수 많은 외국인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복과 더불어 탕기 머리도 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험합니다. 이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한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설계하여 개량 한복 또는 “퓨전 한복” 을 판매합니다. 퓨전 한복은 본래 화려한 한복을 좀 더 심플하게 개발하여 사람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한복을 접할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일부 한국 연예인들은 이 “퓨전 한복” 을 입고 무대를 선보이거나 행사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퓨전한복이 아닌 원래의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복은 옛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한국만의 전통복으로 한국인들은 주로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착용을 합니다. 여자

들은 주로 짧은 저고리와 아름답고 풍성한 치마를 함께 입고, 남자들은 긴 저고리와 바지를 함께 입습니다. 앞서 말씀드듯이 한복은 주로 특별한 행사에서 입습니다. 몇가지의 예를 들자면, 추석 그리고 설날 같은 날에 한복을 입는 것이 보통적입니다. 또한, 한복은 결혼식장에서도 목격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이 착용하신 모습을 흔히 포착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복은 점차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일부인 한복은 우리의 한국을 알리는 정말 고마운 옷이기도 합니다. 오색 찬란한 빛깔로 한국을 빛내주는 우리의 한복. 이 아름다운 한복이아말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하는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6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우주 여행

6학년 노희도(애머스트)



나는 어렸을때 부터, “우주” 라는 존재를 연구해 보면서 많은 상상을 머리속에 저장해왔다. 하지만 우주의 세계로 여행에 대한 글을 써보니 우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주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 물어봤을 것이다. 우주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는 태양계와 밀키웨이 갤럭시처럼 흔한 것들이 많지만 우주여행 속에서는 인간들이 여태껏 처음 보는 희귀한 물체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주여행을 시작하기 전, 나는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꼬옥 하고 안아 줄것이다. 혹시 모른다. 우주에서는 몇초가 지나가겠지만, 지구에서는 하루가 심지어 몇달에서 몇년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신비롭고 멋진 우주여행의 시작은 항상 아름답지는 않다. 우주에 도착한 나는 놀라운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평생 빛이라는 것을 들어보지 않는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는 눈 앞에 떠있는 것 같이 밝은 별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있을 것이다. 지구의 오존층을 뚫고서 바라보는 지구는 밤하늘과 달리 별들과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보고 있을때 너무나 신기했을 것 같다. 남아메리카의 정글

, 아프리카의 사막,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두눈으로 직접 보니 얼마나 실감 날지 상상이 된다. 지구를 관람한 후, 나는 제일 가까이 있는 달에 착지를 해봤을거다. 달에는 뭐든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 그래서 무겁지만 따뜻한 우주복을 입고, 달의 운석 구멍들을 피해 강충강충 뛰어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발자국으로 내 이름을 쓰고 달을 떠났을 거다. 달과 지구를 마무리 짓고, 태양계의 태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을 하나씩 관람하면서 기념의 사진을 남겼을 것이다. 우주 여행을 마친 나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착지했을 거다. 근데 여행을 마친 후 바라 본 지구는 지금의 지구가 아닐 것이다. 차들은 날아다니고, 건물들은 저 하늘 높이 서있을 것이다. 집으로 급하게 뛰어오는 나는 다급하게 문을 열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거다. 그러자 연세를 많이 먹은 부모님은 감동적인 순간처럼 나를 환영해 줬을거다. 나도 함께 소리내어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이 스쳐지나간것 같은 나에게 몇 년이 흐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끌어안는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7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7학년 김종현(뉴잉글랜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클라리네트를 연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매주 학교에서 밴드하고 클라리네트 레슨도 한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클라리네트 콘서트를 많이 한다. 내가 클라리네트 연습을 못했으면 콘서트랑 리허설들에 참가 못했을거고 콘서트에서 많은 파트들을 틀리게 불었을거야. 클라리네트는 나의 학교 생활안에서도 중요한 학교 생활 밖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제일 큰일이다. 근데 연습하는 것은 내가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게도 도와줘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올때 클라리네트를 연습한다. 나한테는 악기를 불르는게 제일 즐겁고 쉬기에 좋다. 나는 학교 때문에 피곤하면 나의 악기가 나를 암전하게 도와준다. 나는 나의 악기에 나오는 노래를 들을때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이렇게 편해질때 학교 숙제랑 다른 일 들을

에도 더 잘한다. 한번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해서 떨렸고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피했다. 근데 클라리네트를 부니까 떨림이 없어졌고 공부하는 자신을 봤다. 공부를 집중하게 해서 그다음날에 시험에 100점을 받았다. 클라리네트 연습이 다른 일들에 집중하는 것에도 도와줘서 내가 제일 필요하고 도움 주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클라리네트 연습하는게 나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이유는 내가 어른 될때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이다. 나는 직업으로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클라리네트 연습을 하는게 너무나 크다. 어피셜 클라리네트 뮤지션이 되고 싶으면 클라리네트를 잘 불어야 한다. 잘 불고 싶으면 연습이 필요해서 많이 연습하게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클라리네트 연습하고 잘 불으면 주니어랑 시니어 디스트리크트에서도 참가 할 수 있다. ▶▶24면으로 계속



2024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23면에 이어서

참가하면 대학교에 신청 할 때 잘 보이고 들어가는 확율이 더 크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더 좋은 무지션이 될 수 있고, 나의 직업이 더 좋을거

다. 클라리넷 연습이 나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이유는 나의 생활에 많은 것들을 도와준다.

[8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8학년 오유진(뉴잉글랜드)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 자기의 나라때문에 창피한 내용을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러울 때는 특히 두개가 있습니다. 그 두 자랑스러워 한 느낌이 날 때는 누가 K-pop이나 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때 부터 우리 엄마가 제 친구들의 점심때 무엇을 먹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는 제가 아시아인이라서 음식때문에 누가 제가 이상하다고 말할까봐 엄마가 걱정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음식도 학교에서 먹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고 제 친구들이 제 한 음식 점심을 부러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부러워 할때 제가 집에가서 엄마한테 말해줬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말해주면 엄마가 행복했고 한 음식을 더 싸주시고 친구들이 계속 부러워했습니다. 한 번 우리 엄마가 학교 선생님을 위해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만드냐고 엄마한테 물어봤을때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제 친구가 한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 합니다. 제가 한국이 가장 자랑스러울때는 누가

K-pop이나 K-drama 를 좋아한다고 말할때입니다. 저는 K-pop을 되게 좋아합니다. 노래가 좋고 춤 배우는 것이 재미 있습니다. K-drama는 자주 보지는 않는데 유튜브 쇼에 가끔 나올 때 재미있어 보입니다. 한국인 아닌 친구들도 K-pop과 K-drama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은 K-pop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다. 매일 K-pop과 K-drama에 관련된 비디오와 사진을 서로 보냅니다. K-pop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때 저는 그래도 한국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걱정할 것 처럼 음식이 다르거나 남이랑 피부색이 달라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을수도 있는데 한국이 인기가 더 많아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과 음악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인기가 많지 않았어도 저는 한국을 자랑스러워 했을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이미 자랑스러워하고 친구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제가 기쁜것입니다.

[8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한국이 자랑스러울 때

8학년 오재인(뉴잉글랜드)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나의 부모님도 한국인이지만 나와 다른점이 있다. 나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사온거고, 나는 미국에 태어나서 한국을 한번도 안가고 보고 한국학교를 다니는 한국인이다. "왜 한국 학교를 다녀?" 라고 물어보면, 나는 내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답을 한다. 그런데 그것 뿐이 아니다. 나는 한글학교를 다녀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다. 내가 한국학교를 안다녔다면 나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3살때부터 한국학교를 꾸준히 다녔다. 나는 어렸을 때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집에서 엄마와 아빠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다보니, 나는 한국어를 까먹지는 않았다. 심지어 쓰는 것도 잘했다. 이 글짓기대회처럼 나는 8살 때부터 글짓기 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나는 3년동안 대상을 받았다. 너무나 뿌듯하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크면서 영어를 더 많이 쓰다보니 나의 한국어는 점점 더 약해지고 까먹는 단어가 많았다. 나는 한국이 자랑스러우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나의 한국인 친

구들은 한국을 적어도 한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다. "너 한국 가봤니? 너무 재미있고 좋아" 라고 말하면 나는 "아, 그래?" 라고 할수 바게 없었다. 그럴 때가 있어도 나는 한국이 항상 자랑스럽다. 한국의 언어, 한글, 한국역사, 한복, 한국 음식 등 모두 너무나 아름답다. 한국역사를 배우는게 어렵고 지겨울수도 있지만, 한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배우는게 중요한 것 같다. 나는 한국학교를 통해 나와 같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경험과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나이에 비해서 한국말을 잘 못하던가 한국어를 잘 못써도 나는 한국인이고 그게 자랑스럽다. 나는 매년 한국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한국학교 얘기를 할때 항상 이 문장을 써왔다. "나는 눈이와도 비가와도 한국학교에 온다." 나는 근데 말대로 아무 날씨에도 매주 토요일날에 한국학교를 왔다. 그만큼 나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다. 나는 1-2년 전, 나의 글쓰는 실력이 나빠진 것 같아서 글짓기 대회를 안 나가고 손글씨 대회를 참가하려고 등록을



[9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9학년 안유찬(뉴잉글랜드)



"타임머신"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명됐으면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많은 이야기, 소설과 영화가 제작되었고, 또 지금 까지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미래가 아닌 과거로 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씩은 상상해 볼 정도로 흔하고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갈 때 마다 꼭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어느정도 먹은 저는 이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회했던 일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해볼것입니다. 예를 들어 6년전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던 시절 모르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봉변을 당한 후 49시간 동안 깊은 현타를 느끼며 밤마다 이불킥을 날렸었던 적이 있는데.. 되도록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막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실수로 김치통을 바닥에 통채로 뚜껑이 열린채로 떨어뜨려 집을 김치바다로 만든 일이나, 초등학교 1학년때 우유를 억지로 먹다가 짝궁 가방에 정통으로 뺀 일 등등을 막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첫째, 저는 먼저 시간여행을 하기 전 필요한 정보들을 먼저 구할것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 정보들을 토대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값이 오르기 전으로 가서 제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한 후 그것들을 모조리 사서 떼 돈을 벌어들일 겁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직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이나 사는 것도 문제 없을거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타임머신을 통해 추억의 장소로 돌아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생각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단순히 추억을 즐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조금 더 생각 범위를 확장해 나무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숲을 본다면 제 계획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방법은 자본은 자본대로 벌고 또 추억까지 즐길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스케일을 좀 아니 엄청나게 키워서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예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월드컵 4강 진출에 성공했을때의 전율과 분위기를 즐기고, 또 대한민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됐을때로 돌아가 한국 국기를 펼치며 그 시절 사람들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 를 외치며 그 달아오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정말 감동적일것 같습니다.

둘째, 저는 가거로 돌아가 제가 살면서 후

오늘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이란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봤는데 진심으로 참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창의력을 듬뿍 써야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글을 써보니 너무나 재미있고 앞으로도 창의력을 쓰는 글짓기 같은 활동이 더욱더 하고 싶어진거 같습니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걸 도와주셨던 모든 관계자분들과 이걸 가능케 도와주셨던 후원자분들과 마지막으로 제 글을 성심 성의껏 잘 읽어주신 멋진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글짓기 대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0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나에게 단 한가지 초능력이 있다면

10학년 이준호(뉴잉글랜드)



나는 겨우 16살이지만, 인간의 한계가 느낄 때가 많다. 특히 나는 체력이 약해서 쉽게 지치기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모든일을 잘해

내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부럽다. 그러다 보면 어떨때는 나에게 마블 코믹스 히어로처럼 엄청난 체력이나 특별한 초 ▶▶25면으로 계속



2024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4

▶▶12면에 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상상을 해본다. 하늘을 날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사물을 생각으로 움직이는거,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을 하는 등, 아주 평범한 내가 탐나게 하는 초능력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 수많은 초능력 중에서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흥길동 처럼 내 자신을 복제해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분신술 초능력을 갖고 싶다.

“정말이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다.” 하루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사시는 우리 엄마가 자주하시는 말이다. 나 역시 고학생이 되면서 몸이 여러개가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첫번째 이유는 몸이 여러개 있었다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신술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여러가지의 클럽활동을 하고 운동도 포함해서 학교생활을 착실히 하면서 알바도 해서 용돈도 벌어서 집에 청소나 설거지를 부모님 대신에 도와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게 되면, 실컷 잠도 자면서 친구들과 함께 콘서트도 가고, 쇼핑도 즐기며 알차면서 재미있고 그리고 충분히 쉬면서 여유 넘친 삶을 살수 있다. 분신술 능력을 갖은 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최고의 엄친아가 되고, 효자

중에 효자로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다. 상상만 해도 안전 대박이다. 또 내가 분신술 능력이 갖고 싶은 두번째 이유는 나는 새롭게 배우고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온 세계에서 경험해보고 싶은게 수없이 있다. 프랑스에서 루브(Louvre)박물관에서는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직접 찾아보고 싶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도 안에 들어가봐서 탄생해보고 싶다. 한국에는 맛집 투어도 하고 독도는 물론 그리고 북한에 있는 백두산 꼭대기도 올라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하루에 24시간 밖에 없고 세계를 여행할 돈도 없다. 그리고 내 하루하루는 학교생활이 다 지배하고 있고, 계속되는 숙제와 시험 사이에 짓눌린 나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 분신술의 능력이 있는 나와 달리 잔인한 나의 실체는 “정신이 엉뚱한데 팔린” 고등학생이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엄친아도 아닌 내가 얼마나 이 초능력을 원하는지 느낄 수 있는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분신술의 능력이 있었다면 나의 복제들은 온 세계에서 열리는 5월의 축제에서 보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그 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나는 이것을 한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도 나는 여태까지 너무 나 위주로만 살아왔나보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끝,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랄까... 모든 내 인생에서 중요시 여겨왔던 것들과 내가 매일 하던 일, 내가 매일 가던 곳, 내가 매일 먹던 음식 등이 나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으로만 죽음을 생각해 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들은 모두 다 슬퍼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가 더 외닿는 것 같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누가 나를 좋아하게끔 하기 위해서 행동한 내 겉모습은 일시적일 뿐이니 말이다. 내가 진짜 죽는다면 나와 가장 가까웠던 나를 제일 잘 알았던,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들이 나를 제일 많이 기억해줄텐데...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언제나 남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라는 말과 함께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내가 나 자신한테서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는 더 남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내가 좋은 선생님께서 배운 것들을 나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고, 선배들에게서 받은 도움들을 나의 후배들에게도

주며 나를 잘 챙겨주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잘 챙겨주고 싶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도움이 되면서까지도 가끔씩 드는 나의 뿌듯함이 싫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 내 마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야야 하는데 이것조차에도 나의 도움의 손길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보여줬으면 하는 나의 겉모습이라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힘든 일이 있을때 진심으로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가끔은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게 아닐까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기억해주실 바라는 나는 진실된 사람이다. 겉으로는 도와주며 속으로는 그것에 대해 뿌듯해하지 않는 겸손한, 그리고 모든 행동에 진심이었던 사람 말이다. ‘개는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잘해줬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보살펴주었어’, ‘내가 필요했을때에는 늘 옆에 있어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어’ 라는 말들과 생각을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난 그날이 올때까지 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인생은 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해 남들에게 더 진심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전한다면 이렇게 전하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은 진심이었다고

[1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사람들이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나는

11학년 최유나(뉴잉글랜드)



신문을 독자여러분 집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의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